# 사찰 운영난에 경영 수업 뛰어든 수행자들

## 마츠모토 스님 · 이데이츠로 씨 운영 '미래의 주지학원' 각광

사찰 주지들에게 경영법을 지도하는 '미래의 주지학원(住職塾)'이 일본 불교계서 각광받고 있다. 초고령화, 불자 수 감소 등으로 일본 사찰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이 불교식 상례(喪禮)를 도맡고 시민들은 재정적 지원하는 형태의 단가(檀家) 제도마저 수요가 급감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3월 21일 사찰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경영 수업을 진행하는 정토종 본원사(本願寺)파 승려 마츠모토 쇼우케이(松本紹圭 · 37)씨와 '미래의 주지' 강사이자 대표이사 이데이츠로(井出悦郎 · 37) 씨와 인터뷰를 소개했다. '미래의 주지'는 사찰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재테크, 재무회계 등 경영 수업을 진행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입학 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츠모토(이하 마): 2012년 처음 시작할 때는 도쿄, 교토, 히로시마, 카나자와 총 4개 도시서 5개 수업을 개강해 약 80여명이 수강했다. 올해 4월 시작되는 6기는 9개 도시서 125명이 입학할 만큼 수강생이 늘었다.

이데이츠로(이하 이): 주지에 대한 경영 수업이 이제 막 각광받기 시작했다. 수요가 더욱 커질 10년 후를 대비해 사전대비 형태로, '미래의 주지' 강좌와 도시를 늘리고 있다.

**– 학원을 시작한 계기는?**

마: 대학 졸업 후 도쿄에 있는 절로 출가했다. 사찰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지방 사찰들의 경영난이 눈에 들어왔다. '그나마 도쿄니까 이 정도라도 운영되지, 시골 사찰엔 파리만 날리겠지'란 생각이었다. 각 지역마다 사찰의 역사와 특성을 동시다발적으로 확장해야 불교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엔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는 일만 주력했지, 어떤 사찰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초고령화 · 불자 감소 경영난**
**작은 단위 사찰 더욱 심각**
**주지 스님 대상 경영전략 전수**
**마케팅 · 재무 등 교육과정**

**– 두 분이 대학동기라고 들었는데?**

이: 맞다. 마츠모토가 '미래의 주지' 설립에 대한 자문을 구했을 때, 난 도쿄의 경영컨설턴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난 매 분기마다 결과에 쫓기면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꼈다. 내가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된 것 같았다.

그때 마침 불교계 교수들과 스님들을 일적으로 만났는데, 그들의 인품에 반해 '행복의 힌트가 불교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창기엔 회사에 다니면서 일과 외 시간에 마츠모토와 그들의 일을 도왔는데, 2012년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미래의 주지'를 창립하게 됐다.



일본서 각광받고 있는 '미래의 주지학원(住職塾)' 설립자 승려 마츠모토 쇼우케이(松本紹圭 · 사진 왼쪽) 씨와 강사이자 대표이사 이데이츠로(井出悦郎) 씨.
사진출처=미래의 주지학원 공식 홈페이지.

**– 수행자가 경영을 배울 필요가 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마: 물론 경영은 기업만 하는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 하지만 사찰도 사회 전반 및 경제 구조와 뗄 수 없는 사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통을 이어주기 위해선 사찰도 조직 운영에 대해 배워야만 한다.

**– 주지가 꼭 경영해야만 하는가? 경영 전문가와 손을 잡는 방법도 있을 텐데?**

마: 사찰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영인이 혼자 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에게 맡기더라도 주지 스님은 최소한 사찰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한다. 우린 그것을 가르친다.

**– 사찰 경영이 중요한 이유가 '사찰이 존속돼야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사찰은 각 지역의 토착화돼 고유의 지역성을 나타낸다. 사찰이 없어지면 그 역사와 전통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곳이 필요하다.

마: 미래 불교에선 고대 선승과 같은 선지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엔 선지식을 중심으로 각 종파가 발전하고, 선지식이 주석한 절들이 성행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지역의 작은 단위 사찰들이 불교문화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때문에 작은 사찰일지라도 운영 기초를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아름 기자

# 비구니 출신 예술가 라텍스에 '흠뻑'

## 담초 다이슨, '라텍스 의상과 불교 의식' 논문 연구

비구니 스님이었던 한 여성이 라텍스 애호가로 변신, 라텍스와 불교의 공통점을 다루는 박사논문을 쓰기로 마음먹고 크라우드펀딩을 하고 있어 화제다.

영국 남동부 원즈워스에 거주하는 담초 다이슨은 티베트 불교에 귀의해 비구니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런던 왕립미술아카데미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불교의식의 이해-보디 언바운드'를 주제로 라텍스 재질의 옷을 입고 거리 모금을 하고 있다.

담초는 그의 고향인 멜버른에 있는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신비주의와 티베트 불교를 공부했다. 당시 예술 활동하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비구니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담초는 2001년 예술계를 떠난 후 그의 전 재산을 팔고 프랑스의 한 사찰에 출가했다. 10년간 비구니 생활을 한 그는 티베트 불교 의식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불교 의식은 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그것을 '마음의 과학'이라고 말했다"며 "나는 인간의 충동적 행위와 그에 따르는 제약에서 자유롭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인도에서 수행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고 2011년 사찰을 떠났다. 사찰에서의 생활과 맡은 소임들이 그에겐 버거웠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나온 그는 2012년 런던에 정착하기 전 호주, 프랑스 등을 떠돌았다. 영국에 정착한 그는 라텍스에 대한 관심을 발견했고, 불교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담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면, 라텍스는 현존하는 소재 중 체형에 상관없이 가장 모던하고 관능적인 방식으로 몸을 감싼다"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재는 아니지만 아주 섬세한 소재여서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고 말했다.


비구니 스님이었던 한 여성이 라텍스 애호가로 변신해 불교 의식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출처=가디언

또한 담초는 불교적 의식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라져 가는지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담초는 "런던왕립아카데미의 감독관을 만나 불교 의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창의성과 창조성을 탐구에 대한 열망을 내비쳤다"며 "감독관은 티베트 불교와 라텍스예술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는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20대 중반 아티스트였을 시절 내가 의도하는 것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30대에 비구니 시절에는 내 몸과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는 형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40세가 된 지금 내가 의도하는 것은 표현을 위해 구체적인 무언가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라텍스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장난기 있는 방법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아프간서 발견된 3~5C 불상 대중에 공개

## 메스 아이낙서 2012년 발굴
## "두상 함께 발견된 경우 희귀해"

15세기 이상 흙속에 파묻혀 있던 불상이 아프가니스탄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ghanistan)에 전시됐다.

'Artnet news' 3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3~5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일반 대중에 공개됐다. 이 불상은 2012년 아프가니스탄 유적지 메스 아이낙(Mes Aynak)에서 발견됐다. 장시간 흙속에 파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상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불상의 머리가 발굴 당시 떨어져 나갔지만, 머리가 함께 발견됐단 것만으로도 놀라움을 안겼다. 대부분의 불상의 머리가 탈레반에 의해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복원 전문가 에르마노 카르보나라(Ermano Carbonara)는 "머리가 함께 발견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머리는 본체와 조금 떨어진 틈새에서 발견됐다. (탈레반에게 발견되기 전)머리가 떨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인 일로, 형태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 국립 박물관이 2012년 메스 아이낙에서 발견된 불상을 대중에 공개했다.

한편 메스 아이낙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서 동남쪽 40km 떨어진 로가(Logar)주에 위치한 5천년 된 불교 유적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약 1,000억 가치의 구리가 매장됐다고 알려진 메스 아이낙을 중국광물공사에 30억 달러(한화 약 4조원)를 받고 개발권을 팔았다. 이에 중국의 구리광산개발로 메스 아이낙은 훼손 위험에 처해있다.

〈본지 1043호 18면(2015.05.07.), 1081호(2016.01.27.) 보도 참조〉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中 "양국 관계 해치지 말라" 印에 경고

## 달라이 라마 인도 방문에 중국 분노

지난 3월 17~19일 달라이 라마가 인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에 강력히 경고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3월 21일(현지시간) "인도가 분쟁 해결을 위해 달라이 라마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 문화부의 초청으로 지난 17~19일 열린 국제불교대회 개막식에 참석, 강연자로 나섰다.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난했다.

왕더화 상하이 국제관계학원 연구원은 "인도가 분리주의의 상징인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것은 도발을 통해 남티베트 문제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며 "인도의 이런 행위는 스스로 화를 자초할 뿐 아니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상적인 논의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의 달라이 라마 초청에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한다"며 "티베트 문제에서 철저히 약속을 지키고 중국의 핵심적인 관심을 존중해 양국관계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제53회 미래복지포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헌법의 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 역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의 역할을 모색하는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주 제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 일 시 : 2017년 4월 7일 (금) 14시
- 장 소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대강당
- 대 상 :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심 있는 누구나 ※ 참가비 무료
- 접수 및 문의 : 전화 02-723-5102 또는 이메일 leeeumee@jabinanum.or.kr

주요내용
- 발제 1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은 무엇인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 대표)
- 발제 2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 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제품형태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